

캡틴 유한준의 한방 “NC와 한 게임차다”

NC전 1회 14호 선제 투런포 기선제압
전직 캡틴 박경수는 짜릿한 결승 솔로
쿠에바스 12승...팀 시즌 최다승 타이



KT 위즈 유한준은 1981년생으로 올해 만 38세다. 팀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만형이다. 리그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선배다.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37)보다 선배고 얼마 전 은퇴한 이범호와 동갑이다.

그러나 팀에서 주장을 맡고 있다. 흔히 많은 케이스다. 대부분 팀에서 가장 만형은 클럽하우스 리더보다는 그라운드에서 자신의 역할에 집중한다. 캡틴은 밖에서 보는 것 이상 일이 많고 스트레스도 따른다. 그래서 만형들은 캡틴을 정중히 고사한다.

그러나 유한준은 올 시즌 흔쾌히 주장을 맡았다. 10개 구단 캡틴 중 역시 만형



유한준

박경수

이다. NC 다이노스 주장 박민우(26)와는 12년이나 차이가 난다. 조용한 성격이지만 이강철 감독 및 팀원들과 깊이 있는 대화로 특별한 리더십을 선보이고 있다. 가장 중요한 순간 팀의 리더는 4번 타자로 값진 홈런을 터트렸다.

유한준은 28일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NC전 1회초 2사2루에서 선제 2점 홈런을 터트리며 팀의 8-2 승리를 이끌었다. 볼카운트 1B-0S에서 상대 선발 구창모가 던진 131km 슬라이더가 한 가운데로 몰리자 망설임 없이 배트를 휘둘렀고 공은

KBO리그 경기결과 ▶ 28일	
잠실	SK 2 : 4 두산
청주	키움 1 : 2 한화
울산	LG 3 : 4 롯데
창원	KT 8 : 2 NC
광주	삼성 1 : 5 KIA

왼쪽 담장을 훌쩍 넘어갔다. 시즌 14호 홈런.

KT는 전날 치열한 5위 경쟁을 하고 있는 NC에 패하며 2게임차로 격차가 벌어졌다. 그러나 이날 유한준의 선제 홈런에 힘입어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1게임차로 턱 밑까지 따라 붙었다. 특히 KT는 이날 승리로 창단 이후 처음으로 60승(61패 2무) 고지에 올랐다.

캡틴의 선제 홈런과 함께 전직 주장 박경수(35)의 홈런도 빛났다. 2-2 동점 상황이었던 4회 1사 결승 1점 홈런(시즌 9호)

을 날렸다. 유한준 결에서 여전히 젊은 선수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박경수는 2루수로 선발 출장 노련한 수비로 선발 윌리엄 쿠에바스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KT는 뎀 로하스 주니어가 6회 2점 홈런(시즌21호)을 때렸고 9회 3점을 더하며 8-2로 크게 이겼다. 6이닝 2실점을 기록한 쿠에바스는 시즌 12승(7패)으로 팀 한 시즌 최다승 타이 기록을 세웠다.

양 팀 격차가 1게임차로 다시 줄어들면서 NC와 KT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경쟁은 추석 '수원대첩'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두 팀은 9월 12일부터 이틀간 수원 KT위즈파크에서 14-15차전 2연전을 치른다. 수원 경기가 한 차례 우천 취소된 적이 있어 16차전은 잔여경기 일정에 따라 날짜가 정해진다. KBO는 잔여경기 스케줄에 각 팀의 이동을 최소화한다. 만약 14일 최종 16차전이 편성될 경우 추석 연휴 3일 동안 운명의 3연전을 치를 수도 있다.

창원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KBO 이사회, 혁신안 발표

내년 신인 지명권 트레이드 가능 FA 제도·외인 샐러리캡도 개선

KBO 이사회가 움직였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혁신안에 합의를 마쳤다.

KBO는 27~28일 이틀간 2019년 제5차 이사회 및 사장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사회는 현재 KBO리그가 위기라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를 꾀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선 지명권 트레이드를 허용키로 했다. 즉시 전력감이 필요한 구단은 지명권을 넘기고 선수를 수급할 수 있다. 내년 열릴 2021 신인드래프트부터 지명권부터 거래가 가능하다. 단, 트레이드 가능한 지명권은 1년에 2장 이내로 제한하고, 지명권을 양수한 구단은 해당 선수가 입단한 뒤 1년간은 트레이드 할 수 없다.

아울러 외국인 선수 제도도 개선된다. 올 시즌에 앞서 선수당 최대 100만 달러 상한선을 정했으나 현장에서는 꾸준히 불만이 제기됐다. 결국 외국인 선수 샐러리캡으로 구단 사정에 따른 안배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육성형 외인 도입도 검토 중이다.

프리에이전트(FA) 제도의 손질도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KBO 이사회는 FA 80억 원 상한선 도입을 추진했으나 한국프로야구 선수협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올 시즌 이대호(롯데 자이언츠)가 선수협 회장으로 취임한 뒤 FA 제도를 개선하면 상한제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만큼, 향후 협상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이밖에도 혹서기 체력 보호를 위해 2연전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며, 1군 엔트리 등록 인원 확대 및 포스트시즌 경기 방식 변경안도 논의 중이다. 실행위원회에서 세부 내용을 검토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최악래 기자 ing17@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대타 월슨 끝내기 롯데 작전의 승리

동점을 허용했지만 작전으로 승리를 되찾았다. 끝내기 적시타를 터트린 제이콥 월슨(29·롯데 자이언츠)의 대타 카드가 적중했다.

월슨은 28일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홈경기 9회 짜릿한 끝내기 안타를 뽑아 팀의 4-3 승리를 완성했다. 어린 선수들에게 출장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월슨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한 뒤 후반에 기용하겠다는 공필성 감독대행의 작전이 극적인 승리를 이끌어냈다. 3점차 리드에서 동점을 허용하며 자칫 분위기가 가라앉을 뻔 했던 롯데는 승부를 뒤집고 치열한 '탈 풀찌' 싸움 속 9위 자리를 지켰다.

무기력하게 무너지지 않았다. 8회 구원 투수 진명호가 이형종에게 적시타를 맞아 3-3 동점 상황이 연출됐지만 롯데는 침착했다. 곧장 김현수를 고의4구로 출루시켜 무사안루를 만들었고 채은성에게서 투수 병살타를 이끌어내 실점 없이 아웃 카운트



롯데 제이콥 월슨(가운데)이 28일 울산 문수구장에서 벌어진 LG전에서 9회 말 대타로 나서 짜릿한 끝내기 2루타를 터트린 뒤 동료들의 격한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 | 롯데 자이언츠

2개를 쳤다. 고효준으로 마운드를 교체한 롯데는 카를로스 페게로를 삼진으로 돌려세워 위기를 벗어났다.

9회 결정적인 순간에는 월슨을 대타로 내세웠다. 1사 이후 안중열이 중견수 방면

안타로 출루한 뒤 9번 타자 강요한의 타석에 대신 나선 월슨이 상대 문광은의 초구 직구를 받아쳐 좌중간 2루타를 만들었다. 이 때 안중열이 홈을 밟으며 롯데의 추폭가 터졌다.

경기 후 월슨은 “언제든 경기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긴장을 놓지 않았다. 공격적으로 타석에 임했는데 결정적인 스윙으로 경기를 끝내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울산 |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60여종 다양하고! 맛있는!

배달 전문 성공 창업

비싼 월세, 인건비를 극복하기 위해 요즘은 기존 매장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배달 창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매장을 그대로 활용하여 투자비는 줄이고 매출을 극대화 시킬수 있는 배달창업!

본사의 적극적인 배달 시스템을 지원 받으며 바로 창업하세요!

배달 전문점 장점

1. 본사에서 완 / 반제품 공급하므로 전문 주방 인력이 필요 없이 모든 메뉴를 손쉽게 조리, 이익이 많습니다
2. 작은 가게로 최소의 투자비로 맞춤형 창업
3. 매장 / 포장 판매로 매출은 2배 인건비 절감
4. 저렴한 판매가로 다양한 고객 확보로 매출 증대

혼밥 소비패턴 증가 곧 배달창업 성공의 답이다 60가지 메뉴가 소비자 대 만족!

350만원으로 OPEN

지원품목 : 용기, 조리기구, 홍보물
매장운영 조리방법과 레시피 교육

가맹점 문의 1588-3892

(주)쌈촌패밀리

갈비찜, 찜닭, 감자탕, 보쌈, 소머리수육, 미니족발, 소머리국밥, 나주곰탕, 돈까스, 만찬류, 선물용, 전복죽